

[사회]

환승·통학 불편 크게 줄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 일부 조정 시민 반응 市 홈페이지에 “잘했다” 글 잇따라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된 8일 대부분 광주시민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개편 때와 달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나서는 등 혼란을 우려한 모습이 역력했다. 광주시가 미리 각 세대에 배포한 '노선 운행 정보'를 손에 든 사람이 많았고, 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걸린 '조정 노선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도 다수였다.

지난해 같은 큰 혼란은 없었고, 대부분의 시민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 노선이 조정되면서 이용객도 증가, 시내버스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1시 '승정 98번' 이용객은 1천510명

으로 전날인 363명에 비해 1천147명 증가했다. '지원 151번'은 808명이 이용해 431명 늘었고, '승정 39번' 승객도 전날에 비해 340명 증가했다. 신설된 '금호 36번'과 '문흥 48번'에도 각각 1천739명과 630명이 탑승하는 등 이용객이 많았다.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이번 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김성철씨는 “문흥 48번” 버스를 신설해 준 대중교통과 직원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남겼고, 김병희씨도 “학생 통학을 고려한 이번 노선 변경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개편 때 하루에 600개가 넘는 항의 글이 빗발치면서 시 홈페이지가 한 때 다운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이번 조정을 환영했다. 양동시장 노점상은 조정으로 인해 기존의 10개 노선이 18개 노선으로 늘었다며, 이날 오후 2~4시 시

장에 내린 승객들에게 양말 2천340켤레를 무료로 나눠줬다.

“양동시장 좌측 우측 상가 노점상 일동” 박애자 회장은 “버스노선 개편을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기 위해 모았던 돈으로 양말을 사 승객들에게 나눠줬다”며 “광주시가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해 준 것을 감사한다는 뜻에서 행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들을 괴롭히는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광주시 도시공사와 일선 구청이 업무 이관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견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한 달 평균 2천732대의 불법 주정차가 견인됐지만, 올해는 7일 현재 190대에 불과하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김준영 사무관은 “이번 노선 조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과 단거리 환승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여전히 남은 문제점

승강장 표지판 새 노선 없어 혼선 “배차간격 되레 늘었다” 하소연도

광주시민들은 승강장 표지판이 개정된 노선으로 하루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가 지난 7일 밤 모든 승강장 표지판에 B3 용지 크기의 '조정 노선도'를 걸어놓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이를 떼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화전당역(동)' 승강장은 정차하는 버스 중 '공항 1000번'을 제외한 '금남 55번' '금남 59번' '중앙 61번' '1187번' 모두가 노선이 바뀐 곳. 하지만 시가 걸어놓은 '조정 노선도'는 누군가 낚아 채 간 듯 절반만 걸려 있었다. 이처럼 '조정 노선도'가 없어진 승강장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배차간격

이 늘었다는 항의도 있었다. '용전 84번'을 타고 통학한다는 한 학생은 배차시간이 16분에서 50분으로 크게 늘었다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하소연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버스의 노선이 바뀌었다거나 잦은 조정으로 인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버스(철단 20번 등)의 종점을 연장해 운행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학생 강희재(25·광주시 서구 화동동)씨는 “여전히 ‘유스퀘어’나 전남대 인근 등 일부 지역에만 버스가 집중돼 있는 것 같다”면서 “버스 번호인 ‘지원’ ‘첨단’ 등의 지명은 오히려 행선지를 헷갈리게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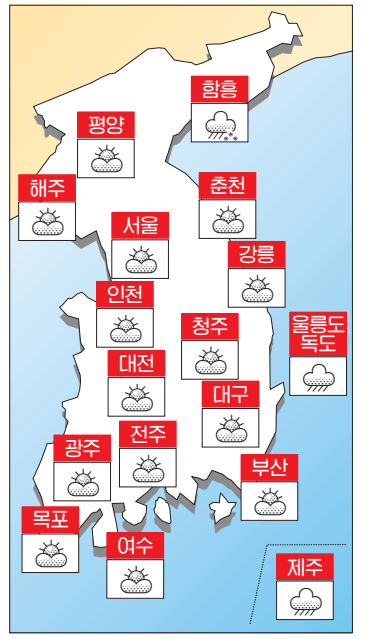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구름 행진곡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구름 많음.

2월 9일 (음 12월 22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4~9℃
목포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3~8℃
여수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6~10℃
순천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4~10℃
구례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2~10℃
해남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2~10℃
함평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2~10℃
영광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5~10℃
영암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2~10℃
진안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2~8℃
완주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4~10℃
전주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3~9℃
남원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2~9℃
정읍	구름 많고, 안개 낄 곳	3~8℃



서해남부
안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안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6:26 썰물 < 11:31
> 18:21 < 23:43
여수 밀물 < 00:42 썰물 < 06:36
> 12:41 < 18:52

▲해돋이 07:25 ▲해질 18:08 ▲달돋음 --:-- ▲달질 10: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날씨						
최저/최고	1/7	-3/9	-2/10	1/11	3/8	0/7

귀성 17일·귀경 19일 가장 혼잡 서울→광주 6시간20분 걸릴 듯

올해 설 연휴가 비교적 짧지만 전국 지역간 이동 인원은 3천405만 명에 달해 귀성 및 귀경길 모두 혼잡할 전망이다.

8일 정부가 마련한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국의 지역간 이동 인원은 3천405만 명, 1일 평균 681만 명으로 지난해 설 때에 비해 5.7%, 평시보다 83.6%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국민이 이용할 교통수단은 ▲승용차 84% ▲시외·전세버스 10.6% ▲철도 3.3% ▲고속버스 1.4% ▲항공기·여객기가 0.7%로 나타났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17일 귀성길과 19일 귀경길이 가장 혼잡하며, 귀성 시에는 오전 9시~낮 12시, 귀경 시에는 낮 12시~오후 6시에 출발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1천 634만대로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4.5% 증가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307만여 대며,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7.6%로 가장 많이 이용할 예정이다. 승용차로 고속도로 이용 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 시 서울~광주 6시간20분 걸리며, 귀경 시에는 서울~광주 7시

설 귀성·귀경 최대 예상 소요시간

구분	서울~대전	서울~광주	서울~목포
귀성	3:50	6:20	8:30
귀경	3:30	6:20	8:40
귀성	5:40	7:30	9:30
귀경	5:50	7:30	9:30

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설 연휴에 철도는 객차 수를 1일 평균 820량 늘려 평시보다 13% 증가한 5천936량을 운행하며, 고속버스는 예비차 97대를 투입해 1일 평균 6천805회로 수송력을 평시보다 5% 늘리며, 전세버스 800대도 추가 투입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16일 정오부터 19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 IC(137km) 구간 상·하행선에서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겨울 가뭄 다소 해갈

광주·전남 짙은 안개 출근길 '조심'

'반가운' 비로 인해 광주·전남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하루종일 호남 전체를 뒤덮었으며, 당분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뭄 해소한 단비=광주·전남에는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려 8일 오후 5시 현재 ▲함평(월야) 29.5mm ▲담양 26.5mm ▲장성 25.6mm ▲무안 22.5mm ▲광주 20.5mm ▲순천 20.0mm ▲나주 19.0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전역에 걸쳐 고르게 왔기 때문에 가뭄을 상당히 해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9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었고, 오는 14일께 한 차례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짙은 안개=기상청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9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깔 것이라고 예보했다. 8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 안개는 종일 지속됐으며, 가시거리(可視距離)가 200m까지 줄어들었다.

기상청은 이번 안개가 비로 인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데다 기온이 소폭 하강하면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올 겨울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차가운 지표면과 따뜻한 공기가 맞물려 안개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정보 유출 국민은행

1,026명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1천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산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이메일이 유출된 황모씨·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와 박씨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이고 나머지 1천24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피해자들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15일 자사 인터넷뱅킹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빈도가 낮은 3만2천277명에게 인터넷뱅킹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연합뉴스



“노선 증설 감사” 양말 선물 광주 양동시장 노점상인들이 8일 오후 버스 승강장에서 승객들에게 양말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상인들은 ‘2·8 버스노선 조정’으로 인해 기존 10개였던 노선이 18개로 증설됐으며, 환영의 뜻으로 승객들에게 양말 2천340켤레를 선물했다. /위지환기자 jrwi@

윤영월 前 서부 교육장

‘국감 욕설’ 무혐의 처분

국정 감사장에서 욕설을 내뱉어 국회로부터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당한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8일 “지난해 10월 19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했다”고 국회모욕죄로 고발된 윤 전 교육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전 교육장이 학교 납품비리와 관련, 일부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받은 뒤 순간 흥분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욕설을 했을 뿐, 난동을 피웠거나 고의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윤 전 교육장은 지난해 욕설 파문 이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최근 전문직 인사에서 일선 교장으로 발령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07년 10월 국제영어학원 개교 10주년 기념 화동사범대학

화동사범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10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를 실시합니다.

대상: 2007년 10월 10일 입학한 100명

구분	대상	장학금
1	10월 10일 입학한 학생	100만원
2	10월 10일 입학한 학생	50만원
3	10월 10일 입학한 학생	30만원
4	10월 10일 입학한 학생	20만원

신청기간: 2007년 2월 9일 ~ 2월 15일

신청처: 화동사범대학 국제영어학원

문의: 010-9580-1111

IBT토플 중123 영어영재반 대모집

확원선택! 정확해야 후회없습니다.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특수영어IBT사사영어학원

조성훈 부원장 전격 초빙!

동아외국어학원

메가퍼스트학원

문의: 062) 222-6253